

文學을 통해 본 漢代文化의 非漢族的 性格

金 學 主

서울대학교 人文大

內 容

- | | |
|------------------|------------|
| 一. 序 論 | 3. 五言詩와 樂府 |
| 二. 漢代文學의 非漢族的 性格 | 4. 散 文 |
| 1. 楚歌와 楚辭 | 三. 結 論 |
| 2. 賦 | |

一. 序 論

여기에서 말하는 <漢代文化>란 兩漢 400년을 통하여 형성된 그 時代 特有的 文化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 漢代文化는 漢 이후 2000年の 中國歷史를 통하여 발전한 中國 傳統文化의 바탕이 되었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님으로, 中國文化史上 漢代文化가 지니는 意義는 莫重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漢族的 性格>이란 中原이라 불리우는 黃河流域 河南地方을 中心으로 하는 地域에 夏·殷·周 三代를 통하여 이룩되었던 中國文化의 主人公으로서의 漢族의 性格을 뜻한다. 따라서 <漢代>와 <漢族>은 다 같이 똑같은 王朝의 呼稱인 <漢>으로 代表되고 있지마는, 여기에서는 그 含義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漢代文化>는 넓은 뜻에서는 <漢族>의 文化라 말하여도 잘못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도 구태여 이를 區別하려는 이유는 中原에서 발생한 <漢族>의 漢文化가 <漢代>에 이르러 여러 면에서 큰 變革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곧 中國 傳統思想의 根幹이 되어온 儒家와 道家思想도 漢代에 이르러 크게 變質되었고 그밖의 政治·社會·學術 등 文化 全般에 걸쳐서도 이전의 漢族文化와는 아주 다른 異質感을 느끼게 할 정도의 變革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漢代에 있어서의 漢文化의 變質 또는 變革은 漢代가 中國傳統文化의 形成과 發展에서 차지하는 重大한 意義로 보아 그 原因이나 性格이 여러 角度에서 徹底히 究明되어야 할 줄로 생각된다. 그래야만 中國文化의 올바른 性格과 참된 價値를 把握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變革의 認識의 重要性을 強調하기 위하여 漢代의 文化를 一見 矛盾되는 表現인듯 느껴지기 쉬운 <非漢族的 性格>이란 말로 形容하고 있는 것이다.

이 漢代文化의 <非漢族的 性格>의 糾明은 앞에서도 잠깐 指摘한 바와 같이 多角度에서 檢討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文學을 爲主로한 檢討를 試圖하려는 것이다. 中國文學史上

漢代에 있었던 詩文의 變革과 漢代文學이 지니는 特性들은 漢代文化의 〈非漢族的 性格〉을 무엇보다도 잘 代辯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漢代文學의 性格變化의 새로운 樣相의 把握은 中國文學史의 展開와 中國 傳統文學의 理解를 위하여도 不可缺少前提가 될 줄로 믿는다.

二. 漢代文學의 非漢族的 性格

1. 楚歌와 楚辭

漢代로 들어서면서 바로 이전의 漢族들의 詩歌와는 다른 性格의 〈楚歌〉가 流行한다. 〈楚歌〉란 中國 南方의 楚나라의 노래란 뜻으로 흔히 〈楚辭〉이라고도 불렀다. 물론 楚나라의 歌謠調의 노래들은 이미 周나라 末葉부터 世上에 알려지기 시작했었다. 「詩經」에도 이미 楚나라 노래의 리듬이라고 생각되는 三言이 基底를 이룬 召南의 江有汜¹⁾ 같은 詩들이 섞여 있고, 「論語」 微子篇에 보이는 接輿歌²⁾, 「孟子」 離婁篇에 보이는 孺子歌³⁾, 劉向(B.C. 77~B.C.6)의 「新序」 節士篇에 보이는 徐人歌⁴⁾, 同人的 「說苑」 善說篇에 보이는 越人歌⁵⁾ 등이 모두 漢 以前 B.C. 5~6世紀 무렵의 楚歌調의 노래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屈原(B.C. 343~B.C. 290?)에 의하여 이루어진 「楚辭」가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楚歌가 流行한 것은 漢代로 들어와서부터이다. 漢高祖 劉邦(B.C. 247~B.C. 195)에게는 大風歌·鴻鵠歌 등의 作品이 있고, 項羽(B.C. 232~B.C. 202)의 垓下歌 唐山夫人(B.C. 206前後)의 安世房中歌, 武帝 劉徹(B.C. 156~B.C. 87)의 瓠子歌·秋風辭 등 帝王貴族을 中心으로 한 楚歌 作品들이 多數 전해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이전의 「詩經」에 실린 詩들과 같은 情感과 리듬을 지닌 作品들은 極히 적어졌으니, 漢代에 이르러 中國詩의 主流는 北方의 「詩經」體의 詩들로부터 南方의 楚歌體로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詩經」의 作品들은 四言을 基底로 하는 形式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內容에는 雅正한 것 뿐만 아니라 淫靡한 것 조차도 들어있지마는 모두가 現實的인 問題나 情緒들을 着實하게 노

1) 國風 召南 江有汜 :

“江有汜，之子歸，不我以。不我以，其後也悔。
江有渚，之子歸，不我與。不我與，其後也處
江有沔，之子歸，不我過。不我過，其嘯也歌。”

2) 「論語」 微子·楚狂接輿，歌而過孔子曰，

“鳳兮，鳳兮，何德之衰！往者不可諫，來者猶可追。已而，已而，今之從政者殆而！”

3) 「孟子」 離婁；

“滄浪之水清兮，可以濯我纓。滄浪之水濁兮，可以濯我足。”

4) 「新序」 節士篇

“延陵季子兮不忘故，脫千金之金兮，帶丘墓。”

5) 「說苑」 善說；

“今夕何夕兮，中壘洲流。今日何日兮，得與王子同舟。蒙羞被好兮，不訾羞恥。心幾煩而不絕兮，得知王子。山有木兮木有枝，心悅君兮君不知。”

래하고 있다. 反面 楚歌의 基本리듬은 三言이며, 그 情緒는 보다 激情的인 慷慨와 悲憤 같은 것을 담고 있고 더욱 修飾的인 形式을 取한다.⁶⁾ 四言이 着實한 中國語의 基本 리듬을 反映한 것이이라며는 三言은 浪漫的인 춤의 리듬을 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漢代에 들어오면서 盛行한 楚歌는 以前 漢文化의 創建者들인 漢族과는 詩의 形式이나 情緒 또는 리듬에 대하여 判然히 다른 感覺을 들어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楚辭」도 屈原과 宋玉(B.C. 290?~B.C. 223?) 등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라고는 하지마는 實際로 「楚辭」라는 책이 이루어진 것은 漢代이다. 지금 우리가 보는 「楚辭」는 後漢 王逸(89?~158?)이 엮어놓은 「楚辭章句」本이다. 王逸은 그의 叙文에서 武帝때 淮南王 劉安(B.C. 178~B.C. 122)이 「離騷經章句」를 지었다 하였고, 劉向(B.C. 77~B.C. 6)은 經書를 典校할 때 「楚辭」를 16卷으로 編輯整理하였고, 다시 後漢 章帝(76~88在位) 때 班固(32~92)와 賈逵(30~101)가 각각 「離騷經章句」를 지었다 하였다.⁷⁾ 그러나 이들은 모두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다. 王逸의 말이 事實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楚辭」라는 책이 이루어진 것은 劉向 때였다.

屈原의 生平에 관한 記錄도 漢代 司馬遷(B.C. 145~B.C. 86?)의 「史記」 屈原賈生列傳과 劉向의 「新序」 節士篇에 있는 것이 가장 詳細하고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적혀 있는 屈原의 傳記는 讚詞를 빼고나면 아주 簡略한 內容일 뿐만 아니라, 內容이 서로 矛盾되고 또 史實과도 다른 記錄들이 있다.⁸⁾ 그 때문에 近來에는 屈原의 實在與否까지도 疑心하는 學者들이 적 많다. 심지어 朱東潤은 「楚辭」란 말의 使用이 漢初의 「楚歌」보다 늦은듯 하다고 하면서 離騷의 作者 屈原을 疑心하였고,⁹⁾ 何天行은 索性 「楚辭」란 모두 漢代에 와서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論證을 試圖하기까지 하였다.¹⁰⁾ 실제로 「楚辭」라는 말이 가장 처음 쓰인 것도 武帝 中葉인듯 하다.¹¹⁾

어떻든 적어도 「楚辭」라는 새로운 詩體가 널리 膾炙되고 尊崇되기 시작한 것은 漢代에 비롯된 일임에 틀림없다. 設使 「楚辭」가 戰國時代 作品이라 하더라도 이전의 中國人들은 그러한 作品에 注意하지도 않았거니와 그러한 作品들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屈原의 傳說이 完成된 것도 漢代이고, 「楚辭」의 尊崇으로 말미암아 별다른 功績도

6) 앞에 든 高祖·項羽·武帝의 作品들이 모두 그러한 特徵을 뚜렷이 들어내고 있다

7) 王逸 「楚辭章句」叙; “至於孝武帝, 恢廓道訓, 使淮南王安作離騷經章句, 則大義粲然 ……逮至劉向, 典校經書, 分爲十六卷 孝章即位, 深弘道藝, 而班固賈逵, 復以所見, 改易前疑, 各作離騷經章句, 其餘十五卷, 闕而不說.”

8) 胡適 「胡適文存」第二集 “讀楚辭”를 참고 바람.

9) 朱東潤 “楚歌及楚辭”——楚辭探故之一(1951. 3. 17 光明日報 學術 第32期), “離騷底作者”——楚辭探故之二(1951 3 31 同上 第33期) 뒤에는 모두 「楚辭研究論文集」(作家出版社, 1957)에轉載됨

10) 何天行 「楚辭作於漢代考」(上海 中華書局, 1948).

11) 「漢書」朱買臣傳; “會邑子嚴助貴幸, 薦買臣, 召見說春秋, 言楚辭, 帝甚悅之.”

그러나 朱買臣(?~B.C. 115)은 나이 50 무렵에야 出仕하였으니, 그가 武帝(B.C. 140~B.C. 88 左位)에게 「楚辭」를 얘기한 것은 紀元前 115년에 가까운 해였을 것이다

없이 지금껏 中國人들에 의하여 屈原이 “偉대한 愛國詩人”으로 崇仰되는¹²⁾ 기쁨이 마련된 것도 漢代인 것이다.

「楚辭」는 原則적으로 楚歌나 같은 리듬의 詩歌이지마는, 篇幅이 더욱 長篇化하고 더욱 修飾性을 띤 文章으로 個人的 幻想과 熱情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楚辭」의 作品들은 노래의 歌詞로써의 性格을 벗어나 完全히 誦讀하는 詩로 발전해 있다는 것을 아울러 생각할 때, 그 形式이나 內容이 詩經의 詩들로부터 楚歌보다도 더욱 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楚나라는 春秋時代만 하더라도 中原과는 다른 蠻夷의 나라로 생각되고 있었다.¹³⁾ 곧 楚는 中原과는 다른 風俗과 言語 制度를 갖고 있던 오랑캐 地方이었던 것이다.¹⁴⁾ 戰國 이후로 楚의 勢力이 強大해졌고 또 많은 楚地方 人士들이 支配層으로 進出했다 하더라도 그 文化는 中原의 漢族들의 그것에 비길 때 異質의인 것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異質의인 楚나라의 歌謠를 바탕으로한 楚歌나 楚辭가 漢代로 들어오면서 盛行했다는 것은 漢代 文化가 中原에 발달했던 漢族의 것들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었다는 一端을 證明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껏 전하는 楚歌의 作者들의 擧皆가 王公貴族들이고, 또 楚辭의 表彰이 皇室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 졌다는 것도 이전과는 다른 文學的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2. 漢 賦

漢代에는 「楚辭」의 尊崇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賦〉라는 文體를 발달시켰었다. 賦는 楚辭로부터 발달한 것이어서¹⁵⁾, 「楚辭」에 실린 漢人들의 作品 이외에도 賈誼(B.C. 201~B.C. 169)의 弔屈原賦, 司馬相如(B.C. 179?~B.C.118)의 長門賦, 揚雄(B.C.53~A.D.18)의 太玄賦 등 「楚辭」의 形式을 그대로 따른 漢賦들도 있다. 그 때문에 騷賦 또는 〈辭賦〉라는 말로 이들에 대한 明確한 區分 없이 이들을 통털어 呼稱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세히 따져보면 漢代의 賦는 楚辭와는 또다른 獨特한 形式과 內容을 지닌 漢代를 代表하는 文體의 一種임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12) 「楚辭研究論文集」(作家出版社, 1957, 北京)만 보아도 郭沫若의 “偉대한 愛國詩人——屈原”이란 論文을 匹頭로 하여 屈原의 愛國的이고 人民的인 性格을 強調하는 論文들이 10餘篇이나 실려 있다.

13) 「國語」晉語八; “楚爲荊蠻”, 同 鄭語 “南有荊蠻”. 同 魯語下와 晉語六엔 “蠻夷”라는 말이 보이는데, 韋昭는 “蠻夷, 楚也”라 註를 달고 있다 이 밖에도 楚나라를 蠻夷라 부른 用例는 無數하다.

14) 「左傳」成公九年, “晉侯觀於軍府, 見鍾儀, 問之曰; 南冠而縶者誰也? 有司對曰; 鄭人所獻楚囚也.”

「國策」秦策五; “異人至, 不韋使楚服而見. 王后悅其狀, 高其知, 曰, 吾楚人也 而自子之, 乃變其名曰楚.”

「孟子」滕文公上; “今也南蠻缺舌之人, 非先王之道.”

이 밖에도 中原과 楚의 相異한 言語風俗을 알려주는 記錄은 無數히 많다.

15) 劉勰 「文心雕龍」詮賦篇; “賦也者, 受命於詩人, 拓宇於楚辭也.”

漢賦를 흔히 크게 나누어 그 內容에서 보아 <抒情>의 賦와 <叙事>의 賦가 있고, 그 形式에서 보아 <騷體>의 賦와 <散體>의 賦가 있다고 한다. 뒤에 얘기한 漢賦의 特徵으로 보아 <騷體>이며 <抒情>의 賦는 屈原의 楚辭의 形式과 內容을 거의 그대로 繼承한 것으로 보아 크게 틀림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漢初의 <騷體>로 <抒情>을 노래한 賦를 보더라도 楚辭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作品들이 많다. 例로 賈誼의 服鳥賦 같은 것은 모든 文學史家들이 <騷體>의 <抒情>의 賦라 보고 있지마는, 楚辭와는 분명히 다른 形式과 內容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곧 服鳥賦는 楚辭 보다도 훨씬 散文化한 四言 爲主의 問答體의 形式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韻律이 流動的이며, 作者의 情熱이나 幻想 보다는 그의 道家의 人生觀을 담고 있는 哲理的인 內容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文學發展史上 楚辭로부터 漢賦에 이르는 過渡期的 作品이라 할 것이다.

楚辭와 전혀 다른 <叙事>의 賦인 <散體>의 漢賦는 그보다 약간 뒤의 司馬相如에게서 비로소 발견된다. 枚乘(?~B.C. 141)의 七發 같은 것도 완전히 散文化한 問答體로 한 故事들 읊고 있지마는 역시 典型的인 漢賦의 內容을 담고 있지는 않다. 司馬相如의 子虛賦·上林賦·大人賦·長門賦 등에서 비로소 楚辭와는 전혀 다른 文體의 一種으로서 漢賦를 발견하게 된다. 그의 賦는 形式이 완전히 散文化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內容에 있어서도 諸侯 天子들의 威儀와 그 周邊의 山川 宮觀의 壯觀을 華麗하게 描寫한 <叙事>의 賦인 것으로 변하고 있다. 이처럼 司馬相如 이후 漢賦는 그 內容이 事物을 鋪陳하는 것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劉勰(464?~520)이 「文心雕龍」에서 “賦라는 것은 鋪의 뜻”(詮賦篇)이라 하였고, 劉熙는 「釋名」에서 “賦란 敷의 뜻”이라 풀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司馬相如 이후 漢賦가 誇張된 表現과 文章의 修飾을 總動員하여 王侯 周邊의 事物을 자세히 描寫하기에만 힘씀으로써, 걸모양만 거창하고 알맹이는 없는 形式的인 文學으로 변했다는 것은 그 賦를 짓고 읽는 文學集團들의 性格의 變化를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班固(32~92)는 兩都賦序에서 “賦라는 것은 古詩之流이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전의 詩와는 그 內容이나 形式은 물론 그 文學의 理念 조차도 완전히 다른 賦가 생겨났다는 것은 그때 文學活動을 하던 이들의 異質化 때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特히 賦가 文章 속에 깃드는 思想이나 感情은 姑捨하고 華麗한 修飾句의 羅列에만 힘썼다는 것은 이전 漢族의 文章에 대한 漢人들의 生疏性까지도 느끼게 한다. 곧 그들은 漢字로 表現하는 文章의 미묘한 ニュ앙스의 把握이 거의 不可能했기 때문에 그 文章의 內容은 버리고 事物의 誇張된 修飾의 表現과 文章의 形式만을 重視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漢人들의 賦體文章에 대한 生疎性을 뜻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 될런지 모르지만, 적어도 漢代文化의 性格에 이전 漢族의 그것과는 다른 非漢族의 特性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들의 非漢族의 性格이 創作으로서의 文學을 不可能케 했음으로 賦라는 形式的인 알맹이 없는 文章을 盛行시켰다는 것이다.

漢賦가 作家의 個性을 否定하고 前人의 模倣를 일삼았던것도 그 創作性의 缺如에서 오는 것이다. 事物의 華麗한 表現이나 鋪張하는데서는 個性을 云謂할 수조차도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거니와, 거기에다 또 남이 지어놓은 글을 흉내내는 일을 일삼았다는 것은 漢人들의 中國文章에 대한 生疎性도 그 理由의 하나가 되었을 것 같다. 漢賦의 典型이라 일컬어지는 司馬相如의 子虛賦와 上林賦도 실은 宋玉의 高唐賦・神女賦를 模倣한 것이고, 揚雄의 甘泉賦・羽獵賦는 다시 司馬相如를 模倣한 것이다. 班固의 兩都賦는 또 그것을 模倣했고, 張衡의 二京賦는 다시 班固를 흉내낸 것이다. 特히 枚乘의 七發 뒤에는 傅毅의 七激, 崔駰의 七依, 張衡의 七辯, 李尤의 七款, 崔瑗의 七蘇, 崔琦의 七蠲 등등 無數한 模作이 나왔다. 또 東方朔이 答客難을 지은 뒤에도, 揚雄의 解嘲, 班固의 賓戲, 崔駰의 達旨, 張衡의 應閒 등 연이어 前人의 模作들이 나왔다. 곧 漢賦에는 模作品이 아닌 것이 거의 없는 형편인 것이다. 이처럼 漢人의 賦에 模作이 流行했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創作에 있어서의 어떤 阻害要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느껴진다.

한편 司馬相如가 활약했던 武帝時代(B.C. 140~B.C. 87)는 漢賦의 完成期인 동시에 盛行期였는데, 이때는 楚辭의 崇仰과 함께 賦作도 澈底히 皇帝를 중심으로 행하여 졌었다. 그리고 이 때의 賦家들은 司馬相如를 비롯하여 嚴助・朱買臣・吾丘壽王・主父偃・東方朔・枚臯 등이 賦나 지어마치면서 皇帝에게 아부를 일삼고 있었다.¹⁶⁾ 이러한 氣風은 成帝時代(B.C. 32~B.C. 7)까지도 계속되었고, 後漢에 이르러도 이로 말미암은 賦의 性格은 더욱 形式化하였다. 이 때문에 賦는 皇帝의 威勢나 粉飾하면서 皇帝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지어졌고, 따라서 그 內容도 皇帝에게 관계되는 事物을 誇張된 修飾과 거창한 形式을 동원하여 화려한 表現으로 늘어놓는 수 밖에 없었다. 그때문에 皇帝도 이들 賦作家들을 웃으게 짓이나 하는 俳優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며 먹여살려 주었고,¹⁷⁾ 이들의 性格은 權力에의 아부나 일삼던 卑劣한 知識人들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¹⁸⁾ 하기는 이들 賦作家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漢代의 知識人들을 모아놓고 보아도 節義之士는 찾아내기 힘들다.

儒學을 政治社會의 基本原理로 確定시킨 漢代에 이처럼 自負心 없는 卑劣한 知識人들이 皇帝밑에 臣下로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도 매우 이상한 일이다. 儒敎에서는 義氣를 가장 중요한 德目의 하나로 떠받들어 왔었고, 漢代 이전의 中國人들은 무엇보다도 節義의 人을 尊敬하였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漢代文化의 主人公들인 이들 知識人의 卑劣한 性格은 아무래

16) 「漢書」嚴助傳·“武帝善助對，繇是獨擢助爲中大夫。後得朱買臣・吾丘壽王・司馬相如・主父偃・徐樂・嚴安・東方朔・枚臯・膠倉・終軍・嚴葱奇等，並在左右”

「漢書」禮樂志；“至武帝，……乃立樂府，……多舉司馬相如等數十人，造爲詩賦”

17) 「漢書」嚴助傳，“其尤親幸者，東方朔・枚臯・嚴助・吾丘壽王・司馬相如。相如常稱疾避事，朔・臯不根持論，上頗俳優畜之。”

「漢書」枚臯傳；“從行至甘泉・雍・河東，……上有所感，輒使賦之……(臯)又言；爲賦乃俳，見視如倡 自悔類倡也”

18) 拙著「漢代詩研究」第二章 第二節 賦와 賦作家들의 性格 참조

도 異質的인 것으로 느껴진다. 이전의 詩人들은 詩에 있어서 諷諭의 뜻을 重히 여기고, 그들 스스로가 政治的 社會的 敎化的 責任을 自負하는 사람들이었다. 漢代의 賦作家 또는 知識人들에 이르러 그들이 갑자기 節義도 없고 社會에 대한 責任感도 없는 사람들로 변했다는 것은 곧 漢代人들의 正統文化와의 乖離 또는 그들의 非漢族的 性格의 一端을 들어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楚辭와 賦의 推崇은 後漢 班固의 「漢書」 藝文志의 編制에서도 느껴지는 일이다. 그의 藝文志 詩賦略을 보면 먼저 屈原賦 二十家로 屈原·唐勒·宋玉·賈誼·枚乘·司馬相如 등의 賦를 들고 있고, 다시 陸賈賦 二十一家, 孫卿賦 二十五家, 雜賦 十二家를 든 다음 高祖歌詩 二篇·秦一雜甘泉壽宮歌詩 十四篇·宗廟歌詩 五篇 등 歌詩 二十八家 三百十四篇을 들고 있다. 한편 六藝略 쪽을 보면 春秋 三傳들에 이어 議奏 三十九篇·國語 二十一篇·新國語 五十四篇·世本 十五篇·戰國策 三十三篇·奏事 二十篇·楚漢春秋 九篇……등을 附記하고 있다. 이들은 後世의 例로써 보며는 史部로 編入되어야만 할 것인데도 經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春秋」를 經으로써 尊崇한 나머지 이것들까지 같은 條目에 넣었을 것이다.

이러한 體例로써 본다면 詩賦는 班固 스스로 “古詩之流”라고 말한 바와 같이 「詩經」과 같은 性質의 韻文이니 六藝略의 「詩」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詩賦略을 따로 獨立시키고, 또 歌詩 보다는 賦를 앞에 놓았다는 것은 賦를 크게 내세우려는 底意에서 엮은 것이다. 그리고 賦 중에서도 특히 屈原賦를 가장 첫머리에 내놓고 있는 것은 더욱 漢代의 特性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漢代 이전의 詩人들의 感覺에서 본다면 高祖歌詩·宗廟歌詩 등은 特히 雅頌類에 속하는 것으로서 經인 「詩」 속에 포함되어야 했을 것은 물론이며, 당연히 賦 보다는 尊崇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班固가 劉歆(B.C. 77~B.C. 6)의 「七略」을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詩賦에 대한 意識은 後漢에 있어서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을 뜻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前後漢을 통한 詩賦에 대한 意識의 變革은 漢代文化的 이전과는 다른 非漢族的 性格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 보아도 좋을 것 같다.

3. 五言詩와 樂府

漢代文學의 最大의 成果의 하나는 五言詩를 生成 發展시켰다는 것이다. 詩에 있어서의 五言은 이전의 四言에 비하여 리듬이 清新하고 輕快하면서도 變化가 있다. 五言은 다시 2·3字로 나뉘어지고, 3字는 다시 2·1字로 나뉘어져 읽어보면 리듬이 雅正하면서도 變化가 있다. 이전에 또 楚歌體가 있었지만 그것은 變化만 많을 뿐 리듬이 板重하고 形式이 거추장스러운 느낌을 준다. 때문에 詩語로서는 清新하고 輕快하면서도 雅正한 五言의 맛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다. 漢代 이후 五言이 中國詩의 代表的인 句式으로 발전한 것은 그 때문이다.

물론 漢代 이전에는 五言으로 이루어진 韻文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詩經」에도

鄭風 女曰鷄鳴의 第三章과 召南 行露의 第二・第三章, 魏風 十畝之間처럼 거의가 五言으로 이루어진 詩들이 있다. 아래 例를 든다.

知子之來之, 雜佩以贈之.
 知子之順之, 雜佩以問之.
 知子之好之, 雜佩以報之 (女曰鷄鳴 第三章)

誰謂雀無角? 何以穿我屋?
 誰謂女無家? 何以速我獄?
 雖速我屋, 室家不足.
 誰謂鼠無牙? 何以穿我墉?
 誰謂女無家? 何以速我訟?
 雖速我訟, 亦不女從. (行露 第二・三章)

十畝之間兮, 桑者閑閑兮, 行與子遷兮.
 十畝之外兮, 桑者泄泄兮, 行與子逝兮. (十畝之間)

그러나 이들을 읽어보면 한문의 글자 數가 다섯字로 이루어졌다는 것 뿐이지 漢代에 發生한 五言詩가 갖는 輕快하고 清新한 리듬을 지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것들은 後世의 五言詩와는 전혀 다른 性格의 造句라고 하여야만 할 것이다.

또 典籍에 보이는 漢初 이전의 謠言 中에도 五言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다. 例로 「史記」 陳世家에는 楚大夫 申叔時의 말 중에 “鄙語有之” 하고 “牽牛徑人田, 田主奪之牛”란 말을 引用하고 있고 同 留侯世家에는 呂后의 말 중에 “人生一世間, 如白駒過隙”이란 말이 引用되어 있다. 이 때문에 五言詩의 發生을 民間의 謠言에서 찾으려고 한 이도 있었다. 그러나 이 謠言들의 리듬도 五言詩와는 큰 차이가 있다. 더구나 「左傳」 宣公十一年에 引用된 申叔時의 말에는 “牽牛以蹊人之田, 而奪之牛”라 되어있고, 呂后의 引用은 「莊子」 知北遊의 “人生天地之間, 若白駒之過郛”과 같은 내용인 것을 보면, 이들 謠言들은 後世人의 文章意識에 의하여 五言으로 改作된 것이라 보는게 옳을 것이다. 따라서 漢代 이전에는 民間에도 五言의 리듬과 形式을 지닌 歌謠나 謠言 등이 流行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五言의 成立은 中國詩歌의 리듬의 革命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전의 漢族들은 전혀 갖지 못했던 輕快하고 清新한 리듬의 五言이 漢代에 이르러 갑자기 생겨났다는 것도 역시 漢代文化의 非漢族의 性格의 一端을 들어내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지금 前漢의 五言詩라 하여 蕭統(501~531)의 「文選」 卷29에 실려있는 古詩 十九首와 李陵의 與蘇武詩 三首, 徐陵(507~583)의 「玉臺新詠」 卷1의 古詩 八首 및 枚乘의 雜詩 九首가 전한다. 이 밖에도 李陵과 蘇武의 詩들이 여러 類書들 속에 전하고 있으나¹⁹⁾ 이것들은

19) 宋 韓元吉의 「古文苑」 卷 8에 李陵의 錄別詩 八首와 蘇武의 詩 二首가 실려있고, 이밖에 「文選」 李善注, 「太平御覽」·「藝文類聚」 등에는 古詩와 李陵 蘇武詩의 斷句들이 여러곳에 引用되어 있다.

옛날 學者들도 이미 擬作으로 處理하고 있으니 問題 삼을 게 못된다.²⁰⁾ 그러나 「文選」과 「玉臺新詠」所載 古詩들에 대하여도 옛부터 많은 사람들이 疑心을 품어왔고,²¹⁾ 근래에 와서는 그것들을 建安 이후의 擬作이라 主張하는 學者들이 많다.²²⁾ 그러나 적지 않은 學者들이 古詩들이 지니고 있는 後漢과는 다른 분위기 때문에 그것들이 全部 完全히 後漢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主張에는 同調하지 않고 있다.²³⁾ 곧 前漢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은 古詩는 없었지만 그보다 洗鍊이 덜 된 五言古詩의 雛型은 적어도 존재했을 거라는 것이다. 그것은 五言詩가 完成되지는 않았지만 그 發生 만은 前漢時期라고 보는 것이다.

五言詩의 發生은 武帝가 設置했던 音樂官署인 樂府의 活動과 큰 關聯이 있을 것 같다. 樂府에서 採集했던 各地方의 民謠도 五言이란 새로운 리듬의 形成에 큰 影響을 끼쳤겠지만 앞의 謠言을 얘기할 때 言及한 바와 같이 漢 이전 民間에 五言으로된 歌謠가 流行했었다는 證據는 없다. 그보다도 樂府의 責任官인 協律都尉로 있던 李延年이 새로 지었다는 「新聲曲」과 西域에서 새로 들어온 胡樂이 五言의 形成에 가장 뚜렷한 影響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新聲曲」은 「新變聲」 또는 「新聲變曲」이라고도 불렀다.²⁴⁾ 이 「新聲曲」이 확실히 어떤 種類의 樂曲이었는지 지금 와서는 알 길이 없으나, 그 新聲 또는 變聲(曲)이라한 말뜻으로 보아 이제껏 中國에 전해지던 樂曲과는 判異한 性格의 노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 註 25에 引用한 「漢書」의 記錄을 根據로 할 때, 外戚傳에 引用되어 있는 佳人歌가 唯一한 李延年의 新聲曲 歌辭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전하는 郊祀歌 十九章도 新聲曲에 의하여 노래 불리워졌을 可能性이 많다. 그러나 郊祀歌 十九章은 그 形式이 여러가지라서 十九章 모두가 한가지 樂曲에 속하는 歌辭라 보기 어렵다. 十九章 중 7篇은 整齊한 三言으로 되어 있고,

20) 예를 들면 馮惟訥은 「古詩紀」에서 「古文苑」所載 李陵과 蘇武詩를 擬蘇李詩 十首로서 따로 다루고 있다

21) 劉勰 「文心雕龍」明詩：“古詩佳麗，或稱枚叔。孤竹一篇，則傅毅之辭，比采而推，西漢之作乎？” 上同；“至成帝品錄三百餘篇，朝章國采，亦云周備。而辭人遺翰，莫見五言。所以李陵班婕妤見疑於後代也。”

鍾嶸 「詩品」：“去者日以疎四十五首，雖多哀怨，頗爲總雜，舊疑是建安中曹王所製。”

이 밖에도 「文選」李善注，摯虞의 「文章流別」，蘇軾의 答劉沔都曹書(「東坡全集」)，洪邁의 「容齋隨筆」卷14，顧炎武 「日知錄」卷23，錢大昕 「十駕齋養新錄」卷16 등

22) 梁啓超 「中國之美文及其歷史」，馬茂元 「古詩十九首探索」前言，劉大杰，「中國文學發展史」 등

23) 隋樹森 「古詩十九首集釋」，逯欽立 「漢詩別錄」(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集刊 第13本)，叢平伯 「古詩明月皎夜光辨」(清華學報 第11卷 3期)，徐仁甫 「古詩明月皎夜光解」(志學月刊 第1卷 3期) 金克木 「古詩玉衡指孟冬試解」(開明 國文月刊 第63期) 등.

24) 「漢書」禮樂志；“至武帝定郊祀之禮，……乃立樂府，采詩夜誦，有趙代秦楚之謳 ”

上同 藝文志，“自武帝立樂府而采歌謠，於是有了趙代之謳，秦楚之風 ”

25) 「漢書」禮樂志；“至武帝……乃立樂府，……以李延年爲協律都尉，多舉司馬相如等數十人，造爲詩賦，略論律呂，以合八音之調，作十九章之歌 ”

上同 佞幸傳；“李延年善歌，爲新變聲 是時上方與天地諸祀，欲造樂，令司馬相如等作詩頌，延年輒承意弦歌所造詩，爲之新聲曲 ”

上同 外戚傳；“李武夫人，本以倡進 初夫人兄延年，性知音，善歌舞，武帝愛之 每爲新聲變曲，聞者莫不感動，延年侍上，起舞歌曰；北方有佳人，絕世而獨立 一顧傾人城，再顧傾人國 寧不知傾城與傾國？佳人難再得 ”

다른 8篇은 整齊한 四言이며, 나머지 4篇만이 3·4·5·6·7言 등이 二種 이상 섞여 이루어진 雜言이다. 따라서 이것들은 모두 「詩經」이나 「楚辭」體를 模倣한 作品들이며 文章도 뛰어난 것이 없다. 따라서 이 郊祀歌 十九章을 두고 새로운 노래란 뜻의 「新聲曲」이란 칭호를 붙이기는 힘들것 같다.

佳人歌는 끝머리 「寧不知傾城與傾國」의 한 句만을 빼면 나머지는 모두가 完整的인 五言이다(註 25 참조). 그러나 「玉臺新詠」을 비롯하여 여러 類書에 引用된 이 佳人歌를 보면, 이 끝머리 두 句가 여러가지로 다르다.²⁶⁾ 이를 보면 지금 전하는 佳人歌가 傳者들의 意識에 따라 여러가지로 改記되어 李延年의 본래의 것과는 많이 달라진 것일 可能性이 많다.

그리고 「漢書」外戚傳의 記錄에 의하면, 武帝는 李延年의 이 노래를 듣고 감탄하여 그의 누이동생(李夫人)을 불러 만나보고 寵愛하게 된다. 그러나 「史記」佞幸傳에 의하면 李延年是 宮刑을 받은 몸이었고, 平陽公主가 延年의 女弟가 樂舞에 능하다고 말하여 武帝가 그를 불러보고 寵愛케 된다. 그리고 李延年是 反對로 女弟 덕분에 武帝를 가까이 삼기게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²⁷⁾ 「史記」外戚世家的 記錄도 李夫人의 受寵이 李延年 보다 앞섰던 것 같은 말투이다.²⁸⁾ 그리고 같은 「漢書」佞幸傳에도 李夫人이 昌邑王을 낳아 寵愛를 받음으로써 李延年도 그 덕분에 貴해져 協律都尉가 되었었다고 記錄되고 있다.²⁹⁾ 따라서 이 佳人歌의 傳說은 後世人의 擬作일 可能性이 많으며, 佳人歌 自體까지도 疑心스런 눈으로 보는 이가 많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李延年의 新聲曲이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리듬, 四言이나 楚歌體 보다도 五言에 適合한 새로운 樂曲의 開發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의 佳人歌는 적어도 新聲曲이 지금 전하는 五言古詩 같은 完整的인 五言詩를 이룩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五言에 가까운 리듬의 詩歌였음을 暗示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李延年의 新聲曲은 胡樂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晋나라 崔豹의 「古今注」卷中 音樂條에 “橫吹는 胡樂이다. 張騫이 西域에 들어갔다가 그 法을 배워 西京에 傳하였는데, 오직 摩訶兜勒一曲을 얻었을 뿐이었다. 李延年是 胡曲을 根據로 하여 다시 新聲二十八解를 지었다. 武帝 때에는 그것을 武樂으로 썼고, 後漢 때에는 그것을 邊境의 將軍들에게 주었으며 和帝 때에는 萬人將軍이면 그것을 演奏할 수가 있었다. 魏晉 이래로 二十八解는 다 남아있

26) 「玉臺新詠」卷1 李延年歌詩; “傾城與傾國, 佳人難再得.”
 「文選」卷21 顏延年 秋胡詩 李善注; “寧知傾城國, 佳人難再得.”
 「藝文類聚」卷18 美婦人下; “寧不知傾城國, 佳人不可再得.”
 「太平御覽」卷136 孝武李皇后; “寧知傾城傾國, 佳人不可再得.”
 上同 卷381 美婦人; “豈不言傾城國, 佳人難再得.”
 上同 卷517 姊妹; “不惜傾城傾國, 佳人難再得.”

27) 「史記」佞幸傳; “李延年, 中山人也. 父母及身兄弟及女, 皆故倡也. 延年坐法腐, 給事狗中 而平陽公主言延年女弟善舞, 上見, 心悅之 及入永巷, 而召貴延年. 延年善歌, 爲新變聲, ……”

28) 「史記」外戚世家; “而中山李夫人有寵, 有男一人, 爲昌邑王, 李夫人蚤卒, 其兄李延年, 以音幸, 號協律, 協律者故倡也, 兄弟皆坐姦族. ……”

29) 「漢書」佞幸傳; “而李夫人產昌邑王, 延年繇是貴, 爲協律都尉, 佩二千石印綬.”

지 않고,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는 黃鵠·隴頭·出關·入關·出塞·入塞·折楊柳·黃
 軍子·赤之陽·望行人의 十曲이 있었다.³⁰⁾는 설명이 있다. 「晉書」樂志에도 비슷한 內容의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古今注」의 기록을 딴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기록에 의하면은 李延
 年은 西域에서 輸入한 胡樂을 본떠서 “新聲二十八解”를 만든 것으로 되어있다. 이 “新聲二
 十八解”도 지금은 전하지 않으니 어떤 性格의 樂曲이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李延
 年의 新聲曲이 西域에서 새로 들어온 胡樂의 영향을 크게 입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곧 앞에서 얘기한 佳人歌도 胡樂의 영향 아래 이루어진 것이며, 胡樂을 바탕으로한 李延年
 의 新聲曲이 전에 없던 새로운 리듬에 의하여 五言을 이루게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樂府에서 採集한 民歌로써 “趙·代·秦·楚의 노래”가 있었다 하였으니, 新聲曲
 은 胡曲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民歌의 영향도 틀림없이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五言이라는
 새로운 리듬의 形成에는 中原地方의 民歌가 아닌 「漢書」藝文志에도 보이는 吳楚汝南歌詩
 十五篇, 燕代驅雁門雲中隴西歌詩 九篇 등 僻地의 詩歌들이 크게 作用했을 것이다. 그것은
 後世 魏晉南北朝의 樂府들, 특히 南朝와 北朝의 樂府들이 모두 整齊한 五言이라는 것으로
 보더라도 漢代 中原으로부터 먼 地方의 歌謠들 중에는 五言에 가까운 리듬을 지닌 歌謠들
 이 있었을 것이다.

어떻든 漢代에 생겨난 五言이라는 새로운 리듬의 詩體는 이전의 中原의 漢族들의 歌謠와
 는 아주 다른 詩體이며, 그것은 胡樂이나 또는 오랑캐라 불리우던 邊境地方의 民謠의 영향
 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일 可能性이 많은 것이다. 이처럼 前漢에 발생하여 中國의 代表
 的인 詩體로 발전한 五言詩 조차도 漢代文化的 非漢族的 性格의 一端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漢書」禮樂志에 武帝時代에 朝廷과 郊廟에서 쓰는 詩歌가 雅聲이 아닌 鄭聲임을 指
 摘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³¹⁾ 前漢 때부터 郊廟에서 쓰는 音樂 조차도 中原의 正統의인 雅樂
 과는 달라진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武帝時代의 樂府의 設置 이후 漢代의 樂歌에는 一
 大革新이 일어났었음이 틀림 없다.

이러한 正統의 音樂이 아닌 鄭聲은 武帝 이후 皇室을 비롯하여 漢代 貴族社會에 널리 普
 遍化되었었다. 심지어 一部 貴族들은 帝王과 女樂을 다룰 지경에까지 이르렀었다.³²⁾ 그때문
 에 哀帝(B.C. 6~B.C. 1 在位)는 鄭聲의 盛行을 꺼린 나머지 樂府를 罷하고 朝廷에서 쓰던

30) 崔豹「古今注」, “橫吹, 胡樂也. 博望侯張騫入西域, 傳其法於西京, 唯得摩訶兜勒一曲. 李延年因
 胡曲, 更進新聲二十八解, 乘輿以爲武樂, 後漢以給邊將軍, 和帝時, 萬人將軍得用之. 魏晉以來,
 二十八解不復具存, 見世用者, 黃鵠·隴頭·出關·入關·出塞·入塞·折楊柳·黃軍子·赤之陽·
 望行人十曲.”

31) 「漢書」禮樂志; “是時河間獻王有雅材, 亦以爲治道非禮樂不成, 因獻所集雅樂. 天子下大樂官, 常
 存肄之, 歲時以備數. 然不常御, 常御及郊廟, 皆非雅聲……今漢郊廟詩歌, 未有祖宗之事, 八音諷
 均, 又不協於鍾律, 而內有掖庭材人, 外有上林樂府, 皆以鄭聲施於朝廷.”

32) 「漢書」禮樂志; “是時(成帝)鄭聲尤甚. 黃門名倡丙疆·景武之屬, 富顯於世. 貴戚五侯定陵·富平
 外戚之家, 淫侈過度, 至與人主爭女樂.”

音樂들을 整理하기까지 한다.³³⁾ 여기에서 말하는 鄭聲이란 곧 中原의 雅樂이 아닌 武帝 이후 새로 유행하기 시작한 변두리 地方의 民歌와 胡樂 같은 것을 뜻할 것이다. 그리고 李延年의 新聲曲도 틀림없이 이 鄭聲 속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음과 같은 前漢代 貴族과 知識人들에 관한 두 가지 事實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는 漢代의 貴族들이 그들 身分과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異質의인 民歌와 胡樂(鄭聲, 新聲曲 포함)을 좋아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처럼 武帝 때에 五言의 리듬을 발생시켰으면서도 실제로 五言詩의 盛行은 훨씬 뒤인 後漢末 建安(196~219)에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漢代의 貴族들이 이전의 時代와는 달리 지나치게 低俗한 音樂들을 좋아했다는 것은 漢代 指導階層의 前代와는 다른 性格의 變化를 생각해 한다. 그리고 西紀 紀元前 100年 무렵에 五言의 리듬을 이룩하였으면서도 그 盛行이 2·3百年이나 뒤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漢代 文人들에게 五言의 리듬은 아주 生疎한 것이었기 때문에 五言詩의 盛行이 그처럼 뒤질 수 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어떻든 漢代 貴族들이 새로운 俗樂을 무척 좋아했었다는 일이나, 五言이 前漢에 이룩되었으면서도 그 盛行은 後漢末로 미루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것도 모두 漢代文化의 主人公들이나 漢代文化 自體의 非漢族의인 性格의 一端을 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4. 散 文

散文도 漢代로 들어오면서 더욱 形式化한다. 文章의 修辭技巧을 重視하여 對句와 典故의 使用에 힘쓰는 한편 句形이 整齊해진다. 賈誼(B.C. 201~B.C. 169)의 過秦論이나 陳政事疏에서 이미 그러한 傾向은 뚜렷이 드러나고 있고, 司馬相如(B.C. 179?~B.C. 117) 晁錯(?~B.C. 154), 司馬遷(B.C. 145~B.C. 86?) 같은 前漢의 文章家들에게서 다같이 發見되는 현상이다. 이것은 形式爲主의 賦라는 文體의 盛行에도 영향을 입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 司馬相如의 喻巴蜀檄·難蜀父老文 같은 글은 완전히 賦體로 쓰여지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傾向은 後漢으로 갈수록 더욱 一般化하여 駢儷文에 가까워진 文章이 흔히 눈에 띄게 된다.

이러한 文章意識의 發展은 「史記」와 「漢書」에 다같이 收錄되어 있는 詩歌들의 記錄態度에도 뚜렷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漢武帝의 命으로 지었다는 太一歌나 天馬歌 등을 보면 “太一貢兮天馬下, 霑赤汗兮沫流緒. ……” 또는 “天馬來兮從西極, 經萬里兮歸有德. ……” 式으로 「史記」에는 記錄되어 있는데, 「漢書」에는 楚歌의 獨特한 助辭인 兮字를 빼고 “太一沉, 天馬下, 霑赤汗, 沫流緒. ……” 또는 “天馬來, 從西極, 涉流沙, 九夷服. ……” 式으로 記錄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後漢으로 갈수록 整齊化하던 文章意識에 따라 後漢人들은 兮라는 助

33) 「漢書」禮樂志; “是時鄭聲尤甚, ……哀帝自爲定陶王時疾之, 又性不好音, 及即位, 下詔曰: 惟世俗奢泰文巧, 而鄭衛之聲興. 夫奢泰則下不孫而國貧, 文巧則趣末背本者衆, 鄭衛之聲與則淫辟之化流. ……孔子不云乎? 放鄭聲. 鄭聲淫. 其罷樂府官. 郊祭樂及古兵法武樂在經, 非鄭衛之樂者, 條奏別屬他官.”

辭를 빼버리고 楚歌를 짓는 習性이 생기어 以前의 詩歌들조차도 그렇게 읽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傾向은 漢賦의 “亂曰”의 대목에서 兮字를 빼버리고 七言으로 賦를 짓는 傾向이 생겨났던 것과, 王逸(89?~158?)의 琴思楚歌가 整然한 七言詩로 되어 있는 것 등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漢代에 五言詩와 七言詩가 생겨나 모든 詩들의 句式이 一定한 五言 또는 七言의 方向으로 발전했던 것도 이러한 文章意識의 展開와 步調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文章의 修飾技巧과 形式 爲主의 趨勢는 한편 漢代의 知識인들이 中原의 中國語를 바탕으로 하는 자연스런 文章의 妙味와 맛을 살릴 自信이 없었다는데 큰 原因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中國語의 자연스런 리듬을 버리고 人爲의인 格式을 추구했다는 것은 적어도 그에 대한 그들의 生疎性을 느끼게 한다. 이것도 漢代文化의 非漢族의 性格의 一端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三. 結 論

이상 漢代의 文學 곧 1. 楚歌와 楚辭 2. 賦 3. 五言詩와 樂府 4. 散文의 경우를 하나하나 따져 본 바와 같이 漢代의 文學은 非漢族의인 性格을 모두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여기의 <非漢族의 性格>이란 用語는 表現이 誇張의이라 할런지 모르지만, 적어도 漢代에 와서는 이전의 中原에 發興했던 漢文化로서의 文學과는 判然히 다른 性格의 것으로 變革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漢代文化의 非漢族의 性格은 政治・社會・學術・思想 등 廣汎하게 漢代文化 全般에 걸친 자세한 檢討가 附加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限 漢代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文化 全般에 걸쳐 非漢族의 性格이란 表現을 援用할 程度의 性格變化가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政治面을 보더라도 漢代는 武帝 이후로 儒學을 그들의 基本理念으로 確定시켰었다. 그러나 이미 武帝時代에 儒家의 德治主義와는 반대로 封建郡王들의 勢力을 弱화시키어 秦始皇 못지 않은 強力한 專制體裁를 樹立했었다. 그리고 武帝는 國內의 經濟와 社會秩序를 무너뜨리면서까지 거듭 四方으로 外國遠征을 일삼았었다. 表面上으로는 부드러운 儒學을 標榜하면서 안으로는 強力한 皇權을 이룩하고 專制를 행하였다는 것은 臣下나 人民에 대한 不信感 또는 異質感 때문이었던지도 모른다. 그리고 계속된 外國遠征은 國民의 정신을 밖으로만 돌리는 한편, 疆域을 擴張하여 많은 오랑캐들을 治下에 吸收함으로써 治者들의 文化的 異質性을 克服하려는데 目的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思想面을 보더라도 儒家思想에는 神秘스런 陰陽五行說이 섞여들어 董仲舒(B.C. 187~B.C.

116)의 天人合一說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³⁴⁾ 皇帝의 權威를 絶對化할 수 있는 理論으로 變하였다. 그리고 道學에는 神仙思想과 不老長生術이 끼어들어 道士들의 道教로 변하였다. 「史記」의 武帝本紀가 祭祀와 方士들의 術法과 관련된 迷信의인 行爲로 始終하고 있는 것을 보며는 道家의 道教化는 漢代 指配階級の 異質의인 要求 때문이었던 것도 같다. 學術面에 있어서도 經學은 大體로 이른 바 今文家들에 의하여 支配되었는데, 그들은 經書의 客觀的인 研究보다도 經文을 빌어 그때의 政治狀況을 說明하는데에만 힘썼었다.

社會의 倫理觀도 크게 바뀌어졌던 듯하다. 「論語」에서는 大體로 <忠實>의 뜻으로 가르쳐진 <忠>이 漢代에는 皇帝에 대한 臣下의 絶對的인 服從을 뜻하는 忠誠으로 바뀌었고, 「論語」에서는 父母에 대한 자연스런 恭敬으로서 가르쳐진 <孝>도 忠에 따라 더욱 絶對的인 것으로 硬化하였다. 이 밖에도 男女間의 倫理나 生活習俗 같은데에도 적지 않은 變化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³⁵⁾ 더욱 詳細한 이에 관한 연구는 언젠가는 綜合되리라 믿으며, 이러한 大體的인 事實들만으로도 文學을 通해본 漢代文化의 非漢族의 性格에 큰 뒤바침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한편 文學은 知識人들의 專有物이었음으로 文學을 通해서 밝힌 漢代文化의 非漢族의 性格은 주로 漢代로 들어와서의 知識人 또는 上流 支配階級の 變革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實際로 漢代에 있었던 大變革은 上流 支配層에만 局限되지 않고 漢代 民衆 全體에 걸쳐 있었던 性格上의 變化를 뜻할 것으로 믿는다.

歷史적으로 볼 때 漢이라는 國號가 中國을 代表할 만큼 漢代는 中國의 傳統文化 또는 傳統文學의 發展에 가장 뚜렷하고 굵은 關節을 이루고 있다. 事實上 本格的인 中國의 傳統文化史 또는 傳統文學史의 起點은 漢代라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漢代文化의 非漢族의 性格을 밝히고 理解한다는 것은, 中國의 傳統文化 또는 傳統文學의 進化와 發展 및 올바른 그 特徵을 把握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는다. 곧 後世의 경우 처럼 周 秦에서 漢에 이르는 中國文化나 文學의 發展繼承을 變化 없는 綿綿한 發展으로 본다며는 그 文化 自體의 性格把握에도 큰 錯誤를 犯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元·清等 異族의 王朝를 비롯한 各 時代의 文化上의 變革을 올바르게 理解하여야만 數千年의 歷史를 지닌 中國文化의 傳統의 意義를 올바르게 把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主 要 參 考 書 目.

楚辭章句補註 漢 王逸章句 宋 洪興祖補註 世界書局景印本

34) 董仲舒「春秋繁露」深察名號；“受名之君，天意之所予也，” 上同 順命；“故德侔天地者，皇天右而子之，號稱天子。” 上同 爲人者天；“天地人主一也。” 上同 王道通三；“人主立於生殺之位，與天共持變化之勢。” 上同 威德所生；“爲人主者，居至德之位，操殺生之勢，以變化民，民之從主也，如草木之應四時也。” 등등

35) Han Social Structure, by T'ung-tsu Chu, Edited by Jack L. Dull, Rainbow-Bridge Book Co., Taipei, 1972. 참조 바람.

- 史記 漢 司馬遷 藝文印書館
漢書 漢 班固 藝文印書館
文選 梁 蕭統 世界書局
玉臺新詠 梁 徐陵 廣文書局
樂府詩集 宋 郭茂倩 世界書局
古謠言 清 杜文瀾 中華書局
新序 漢 劉向 世界書局
說苑 漢 劉向 世界書局
全漢三國晉南北朝詩 清 丁福保 藝文印書館
文心雕龍 梁 劉勰 開明書店 排印本
太平廣記 宋 李昉 新興書局 景印本
古文苑 宋 韓元吉 清刊本
藝文類聚 唐 歐陽詢 新興書局 景印本
古今注 晉 崔豹 新興書局 景印本
中國文學發展史 民國 劉大杰 中華書局
楚辭研究論文集 民國 游國恩 作家出版社
楚辭作於漢代考 民國 何天行 中華書局
中國之美文及其歷史 民國 梁啓超 中華書局
樂府詩研究論文集 民國 作家出版社
胡適文存 民國 胡適 遠東圖書公司
漢代詩研究 韓國 金學主 光文出版社
漢儒斗 漢代詩——武帝時代를 中心으로(中國學報 第十五輯, 1975) 韓國 金學主
Han Social Structure by Tung-tsu Chü 虹橋書店

Non-Han Racial character of the Han Culture

seen through literary works

by Hak-chu KIM

(1)

“The Han Culture” means the culture of Two-Han period (B.C. 2 century —A.D. 2 century), and “Han racial character” means the character of the Han race which created pre-Ch’in China on the north China plain. Han race’s pre-Ch’in China had a great difference in their territory and racial constitution with that of Han dynasty, but when we say “Han Racial Culture”, it generally includes “Han culture” within there. Nonetheless, I distinguish their character in this paper to emphasize the drastic change in Han dynasty and to emphasize that it is unfair sometimes to name them with synonyms.

Since Two-Han culture became a cultural foundation of the forthcoming age, I think the study of the cultural change in Han period could lead us to understand the character of the traditional Chinese culture more clearly. This work should be done from many perspectives, but I went on my study here from literary aspect in the first stage.

(2)

1. Ch’u-tz’ü(楚辭) and Ch’u-ko (楚歌) : Ch’u-tz’ü and Ch’u-ko were developed from the songs of Ch’u, located at China’s southern district. Hence they carry with southernly passion and rythmical variety, which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former Han race’s songs in their emotion and style. Ch’u-tz’ü was, at first, written by Ch’u-yuan(屈原 B. C. 343-290?), but actually they were read and prevailed from Han period. And Ch’ü-yuan’s works began to be interpreted as patriotic poems from this time.

Though Ch’u-ko are almost same in style with Ch’u-tz’ü, but in length they are far shorter. Ch’u-ko were prevailed from the early Han dyansty, even the emperor Liu-pang(劉邦, B. C. 247-195), Hsaing-yu(項羽, B. C. 232-202), Liu-Ch’e(劉徹, B.C. 156-87) left some famous Ch’u-ko writings.

Ch’u was thought as a district of southern barbarian in pre-Ch’in era. Songs of barbarians began to be read and written from Han period, and that means a drastic change in the Chinese culture from Han dynasty.

2. Fu(賦) : In the early stage of Han dynasty, Ch'u-tz'ü was developed into another new forms, Fu of Han. Fu made the prime object on its writing with the grandiloquence, ornamentation and display of expression, and became more formalized and prosified than Ch'u-tz'ü. It seems to me that Han race were so unaccustomed to the rythm of the songs of Ch'u that their inexperience in the writings of Ch'u-tz'ü cannot help transforming it to Fu. I think, mimetism in Fu writing which prevailed throughout Two-Han also could be a circumstantial evidence to the above hypothesis. And most of the Fu writers of Han period were engaged in flattery to the Emperor, we cannot find a righteous man among them. Comparing to the Han race, who were traditionally respecting righteousness, we find a wide difference in the Fu writer's character. These characters of Fu and Fu writers in Han period, which represent literature of Han, show us an aspect of drastic change of the Han culture from the original Han race's character.

3. Five-word Poetry(五言詩) : In the former-Han era, typical form of Chinese poetry, Five-word poetry came into being. Though "Nineteen Old Poems(古詩十九首)" and "Poems of Lee ling(李陵詩)" were not written in the early period of Han dyansty, we cannot deny that Five-word poetry broke out during the reign of Wu-ti(武帝, 劉徹). "Five-word" means "Five syllabic", and comparing with previous Four-word poetry, they are buoyant in rythm. This drastic change in the rythm cannot occur without contact with the heterogeneous culture, that is without the change in their songs and language.

4. Prose writings: Prose writings of Han period also tend to the rhetorical flourish and regularization of the passage from the beginning. Especially, prose of the Fu writers of the early periods of Han, such as Chia-yi(賈誼, B. C: 201-169), Ssu-ma Hsiang-ju(司馬相如, B. C. 179?-117) have more regular word form and more antithetical expression. We could say that their prose writings were a start of Pien-wen(駢文) which flourished at Nan-pei-ch'ao(南北朝). The formalizing tendency of prose became more intense in Late-Han period. It seems that because Han writers were lost the rythm and intonation of the Han race's conventional language, they couldn't but write the prose like that.

(3)

If we take a careful look on entire Chinese history, we can find a various change in Han dynasty. Politically autocratic system was solidly fixed, socially men-women relation and concept of Confucian teachings such as Chung(忠, loyalty or faithfulness), Hsiao(孝, Filial Piety), etc. were changed, philosophically Yin-yang(陰陽) principles and Wu-

hsing(五行) theory were applied to many fields. And when we study the problem through literature, we find a drastic change of Han race's cultural character at the time of Han. I think when we talk about the tradition of Chinese culture, we have to give consideration on the drastic change of this era. Furthermore, we guess dynasties of non-Chinese race such as Nan-pei-ch'ao(南北朝), Yuan(元) and Ch'ing(清) also had this kind of change.

Hereby, I think, when we give consideration to these changes, we can understand the correct meaning of long history of the Chinese culture.